

## OECD/DAC 원조효과작업반 회의

OECD/DAC 원조효과작업반 클러스터 회의가 2010년 10월 25일~26일 제 16차 원조효과작업반 전체 회의의 실무회의차원에서 개최되어 각 클러스터별 활동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한 바, 주요 내용을 아래에 기술함.

### I. 주요 내용

- 원조효과작업반 산하 5개 클러스터에서는 공통적으로 향후 활동의 초점을 PD/AAA의 각 클러스터 관련 indicator들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 및 성과파악(stock-taking)에 둘 예정이며, 특히 금년 말부터 본격화되는 PD모니터링 과정에 그간의 활동성과와 교훈을 적극 반영하여 2011년 부산 HLF-4에서 주요 논의이슈로 부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, 아울러 HLF-4 이후의 활동 방향 모색도 관찰됨.
- Cluster A (Ownership and Accountability)는 PD모니터링 관련항목의 설문방식 수정, 수원국 사례조사, “inclusive ownership” 개념 확산 등 추진
- Cluster B (Country System)에서는 수원국 재정회계시스템(PFM) 활용 지침서 및 PD 모니터링 PFM 지표에 대한 기술적 설명서 작성, 성과사례 수집, OECD/DAC의 국가조달시스템 평가 tool 활용계획, 조달역량개발 지침수립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.
- Cluster C (Transparent and Responsible Aid)는 계량화된 원조분업 측정방안, 현황 및 진전 상황 점검을 위한 지역회의 개최, 평가틀 작성, 사례연구, PD모니터링 항목 보완 등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 짐.
- Cluster D (Assessing Progress)는 PD/AAA 공약 이행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3개의 핵심 결과문서 중 하나인 “Progress since Paris” 보고서 작성계획을 중점 논의함.

- Cluster E (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)에서는 MfDR 저변확대 방안, 평가tool 활용 방안, MfDR 관련 모범사례 축적, 관련 지침개발 등이 논의됨.

## II. 평가

- 원조효과작업반 활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각 클러스터들의 담당 이슈들은 PD/AAA의 구체적 indicator들에 관한 것으로서 향후 HLF-4까지 지속적으로 논의될 뿐 아니라 HLF-4의 주요 쟁점사항으로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음.
  - 단, 동 클러스터들은 우리나라가 DAC에 가입되기 이전에 구성되어 우리나라가 정식 멤버로는 활동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주요 성과물(PD 모니터링 지침, 주요 보고서, 사례연구 결과 등)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는 것이 적절함.
- 아울러, 각 클러스터들은 관련 이슈들이 PD 모니터링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설문서 수정 및 보완을 추진하고 있는 바, 우리나라의 원조사업이 PD/AAA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각 해당 항목에 대한 2008년 설문서와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- Cluster D에서는 HLF-4 핵심문서 중 하나인 “Progress since Paris”보고서 작성을 위해 자문단(advisory group)을 구성할 예정이며, 동 그룹에 우리나라의 참여를 제안해 옴.
  - 참고로, 동 자문단 구성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은, 동 보고서가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정치적 행동(action)을 강조하는 만큼 자문단 구성시 실무자 수준보다는 관리자급으로 구성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데 공감하면서 senior level에서의 자문단 구성을 제안한 바 있음.